

방한 관광비자 재개 관련 중국 일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

□ 설문조사 개요

- 설문목적 : 방한 관광비자 발급 재개 관련 중국 내 잠재고객 방한 심리 분석을 위한 조사
- 설문기간 : 2022. 6. 24.(금) ~ 7. 10(일) / 17일간
- 주요내용 : 방한비자, 출국여행(방한여행 및 주요경쟁국) 계획 관련 중국 일반 소비자 대상 온라인 설문(10문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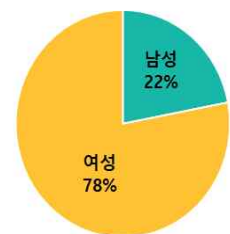
○ (설문방법) 설문조사 프로그램 활용 설문 진행(问卷星, <https://www.wjx.cn/>)

○ (설문인원) 온라인 설문에 총 4,236명 실제 참여

구 분	설문참여	비고
온라인 설문	4,236명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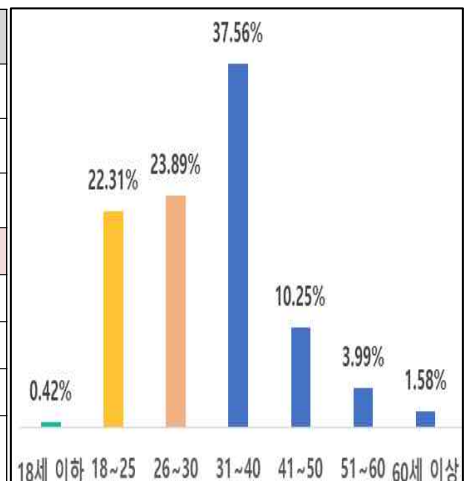
○ (참여성별)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설문 참여

참여 성별	응답인원	비율	순위
여성	3,304	78%	1
남성	932	22%	2
합계	4,236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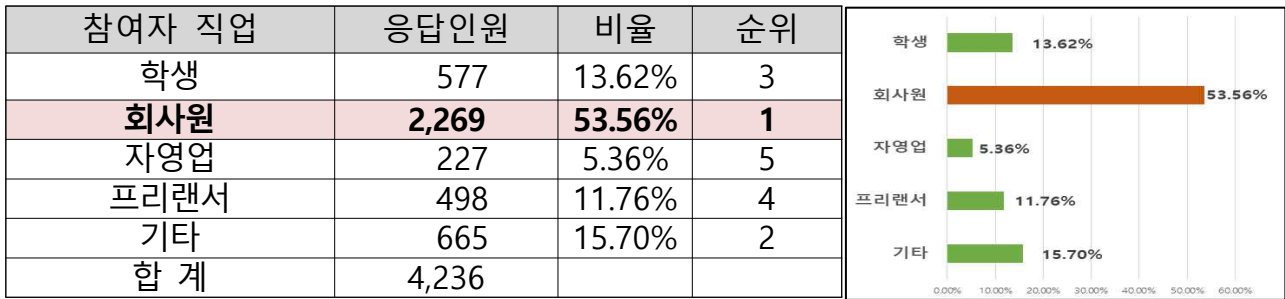


○ (참여 연령) 31~40세 구간에서 설문 참여율이 가장 높음 (37.5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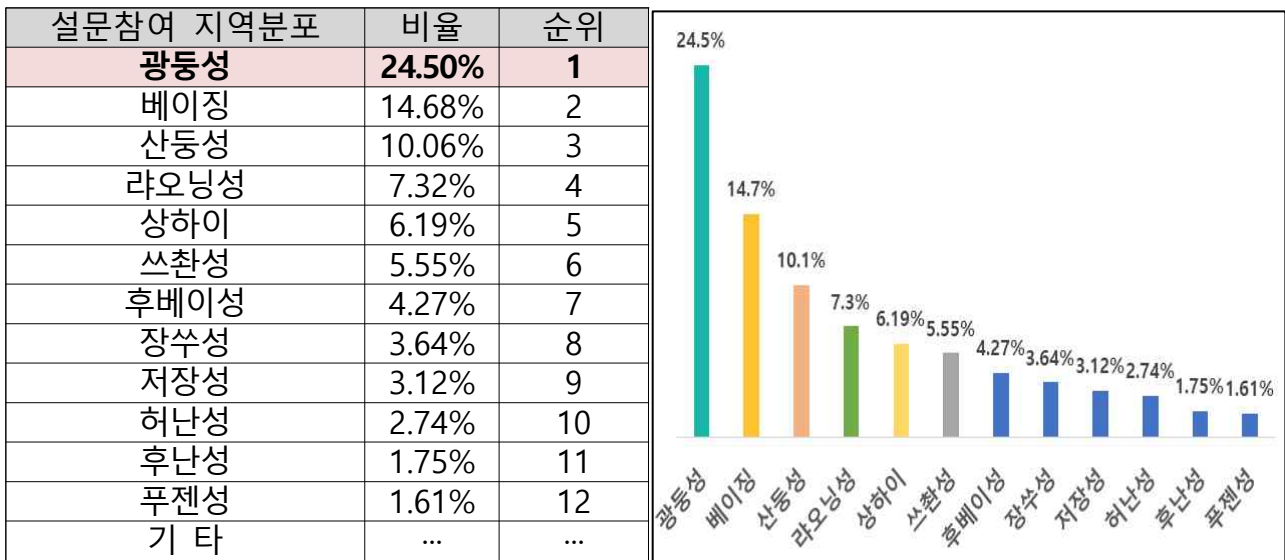
참여 연령대	응답인원	비율	순위
18세 이하	18	0.42%	7
18~25	945	22.31%	3
26~30	1,012	23.89%	2
31~40	1,591	37.56%	1
41~50	434	10.25%	4
51~60	169	3.99%	5
60세 이상	67	1.58%	6
합 계	4,236		



○ (참여자 직업) 회사원 > 기타 > 학생 > 프리랜서 > 자영업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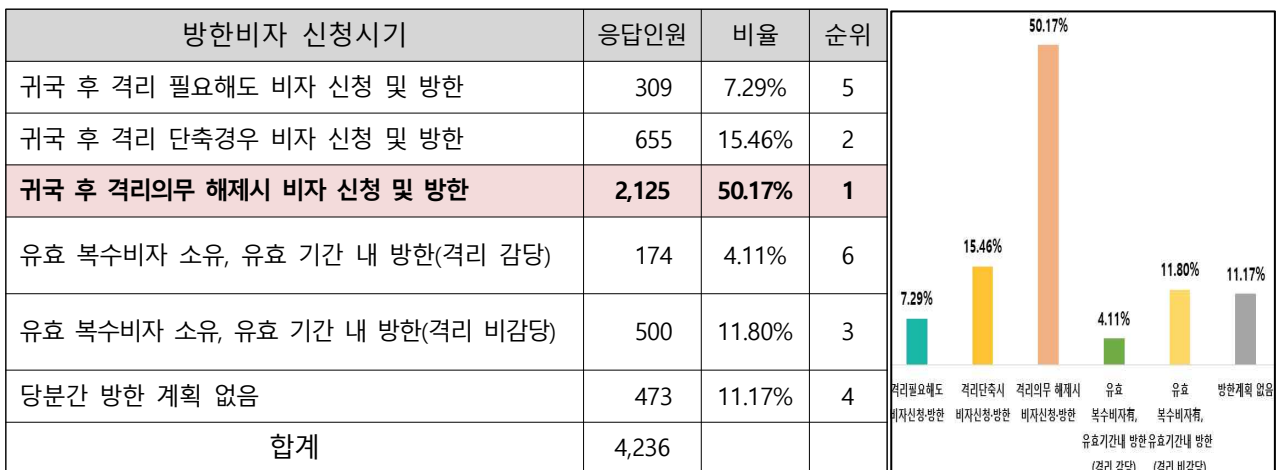


○ (참여 지역 분포) 광둥성 > 베이징 > 산둥성 > 랴오닝성 > 상하이 등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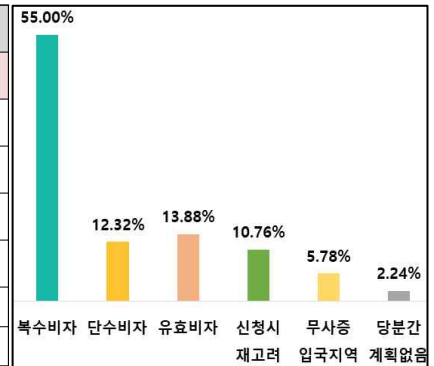
□ 설문조사 내용

○ (방한비자 신청시기) "격리의무 해제시 비자 신청 및 방한" 가장 높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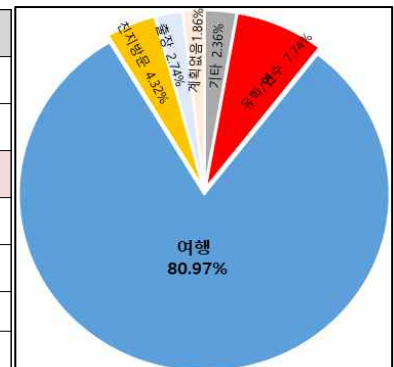
○ (방한비자 신청 고려 종류) 복수비자 > 유효비자 > 단수비자 > 신청시 재
고려 > 무사증입국지역(제주도) 순으로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

비자종류	응답인원	비율	순위
복수비자	2,330	55.00%	1
단수비자	522	12.32%	3
유효비자(기소유)	588	13.88%	2
신청시 재고려	456	10.76%	4
무사증입국지역(제주도)	245	5.78%	5
당분간 신청계획 없음	95	2.24%	6
합 계	4,236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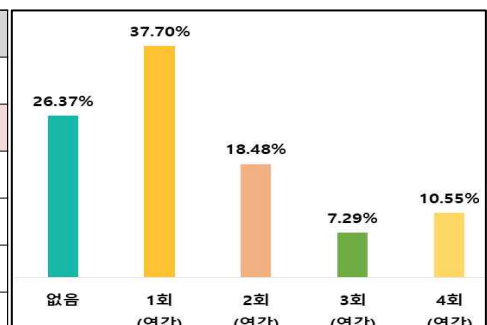
○ (방한 목적) 여행 > 유학/연수 > 친지방문 > 출장 > 기타 순으로 나타남

방한 목적	응답인원	비율	순위
출장	116	2.74%	4
유학/연수	328	7.74%	2
여행	3,430	80.97%	1
친지방문	183	4.32%	3
기타	100	2.36%	5
당분간 방한계획 없음	79	1.86%	6
합 계	4,236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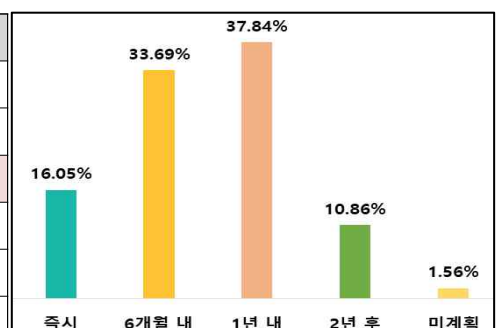
○ (코로나19 이전 방한 횟수) 1회 > 없음 > 2회 > 4회 > 3회 순으로 나타남

방한 횟수	응답인원	비율	순위
없음 (연간)	1,117	26.37%	2
1회 (연간)	1,580	37.70%	1
2회 (연간)	783	18.48%	3
3회 (연간)	309	7.29%	5
4회 (연간)	447	10.55%	4
합 계	4,236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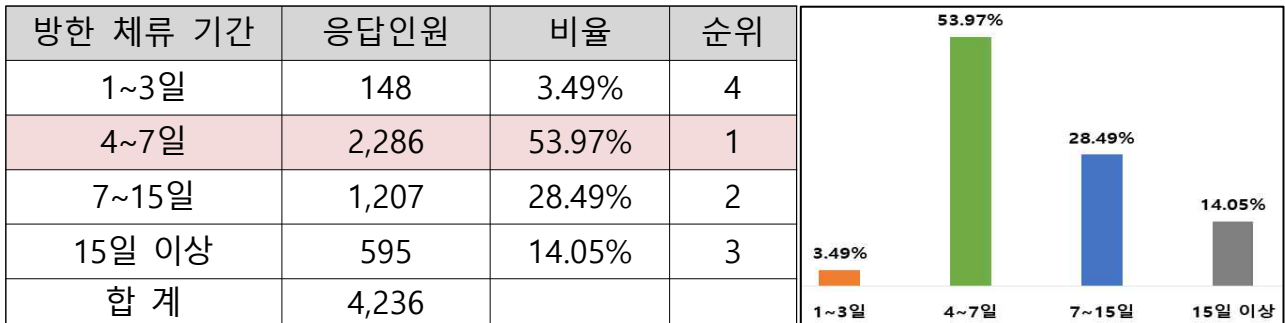


○ (출국 여행 개방 후 방한 시기) 1년 내 > 6개월 내 > 즉시 > 2년 후 > 미계획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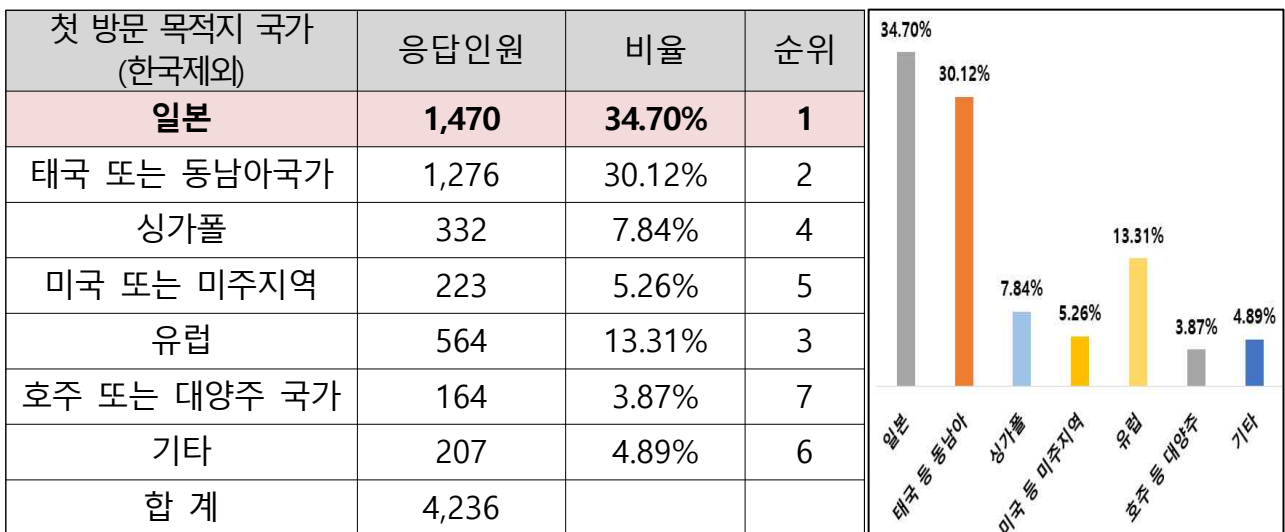
방한 시기	응답인원	비율	순위
즉시	680	16.05%	3
6개월 내	1,427	33.69%	2
1년 내	1,603	37.84%	1
2년 후	460	10.86%	4
미계획	66	1.56%	5
합 계	4,236		



○ (방한 체류 기간) 4~7일 > 7~15일 > 15일 이상 > 1~3일 순으로 나타남



○ (출국여행 전면 개방시, 한국 제외한 첫 목적지 국가) 일본 > 태국 등 동남아 국가 > 유럽 > 싱가포르 등 순으로 나타남



□ 설문조사 분석요약

- (참여대상) 일반 소비자 대상 방한 여행 비자 회복 온라인 설문
중국 전 지역에서 총 4,236명이 동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, 여성
설문 참여율이 78%(3,304명), 참여 연령대는 31세~40세 구간에서
37.56%(1,591명)로 높게 나타남.
- (참여직업) 회사원 53.56%(2,269명), 학생(13.62%), 프리랜서
(11.76%), 자영업(5.36%) 순으로 나타남.
- (지역분포)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, 특히 광둥성(24.5%), 베이징
(14.68%), 산둥성(10.06%), 랴오닝성(7.32%), 상하이(6.19%) 등
순으로 나타남.
- (방한 비자 신청시기) 귀국 후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시 비자신청

및 방한을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율이 50.17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격리기간 단축될 경우 비자신청 및 방한이 15.46%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, 유효 복수비자를 소유한 경우 격리가 필요없을시 유효 기간 내 방한을 고려가 11.8%, 당분간 방한계획 없음이 11.74% 순으로 나타남.

- (방한비자 신청종류) 방한비자 신청시 복수비자(55%), 유효비자(13.88%), 단수비자(12.32%), 신청시 재고려(10.76%), 무사증입국지역(5.78%), 계획없음(2.24%)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(방한목적) 방한 주요 목적으로 여행(80.97%)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유학/연수(7.74%), 친지방문(4.32%), 출장(2.74%) 순으로 나타남.
- (코로나19이전 방한 횟수) 연간 기준으로 1회(37.7%) 응답율이 가장 많았으며, 없음(26.37%), 2회(18.48%), 3회(7.29%), 4회(10.55%) 순으로 나타남.
- (출국여행 개방시 방한 시기) 1년 내(37.84%), 6개월 내(33.69%), 즉시(16.05%), 2년 후(10.86%) 순으로 나타남.
- (방한 체류 기간) 4~7일(53.97%)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, 7~15일(28.49%), 15일이상(14.05%), 1~3일(3.49%) 순으로 나타남.
- (출국여행 개방시 한국제외한 방문 목적지) 일본(34.7%), 태국 등 동남아(30.12%), 유럽(13.31%), 싱가포르(7.84%), 미국 등 미주지역(5.26%), 호주 등 대양주(3.87%)로 순으로 나타남.